

# 예금금리 더 떨어져 연 3%대... 투자처 찾지 못한 대기자금 ↑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에 11.4조 요구불예금 10.8조 전월比 5배 ↑ 정기예금 금리 연3.83%서 0.19%p ↓ “대출·예금금리 함께 큰 폭 하락세”

은행 예금금리가 낮아지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에 몰리고 있다. 시장금리와 예금금리가 함께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 대기성 자금이 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11조4000억원이 몰리면서 증가 폭이 전월(0.4조 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같은 달 요구불예금도 10조8000억원 늘어 증가세가 전월(2.1조 원) 대비 5배 이상 늘어났다.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지난 1월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정기예금의 88.2%는 연 3%이상 4%미만 금리로 집계됐다. /뉴스1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4조8684억 원으로 1주 전인 지난달 22일보다 1조2420억 원 늘었다.

지난 1월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정기예금의 88.2%는 연 3%이상 4%미만

금리로 집계됐다. 연 4%대 정기예금 비중은 한달 전 42.4%에서 6.6%로 35.8%포인트(p) 감소한 반면 연 3%대 정기예금 비중은 같은 기간 52.8%에서 88.2%로 35.4%p 증가했다.

금리도 같은기간 연 3.83%에서 3.64%로 0.19%p 하락했다.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중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시장금리도 하락하고 있다”며 “대출금리와 함께 예금금리도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기준 1년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비은행기관으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각각 연 4.20%, 연 4.11%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도 전달과 비교해 각각 0.17%p, 0.09%p 떨어졌다.

예금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의 JB다 이팩트예금이 연 3.80%를 제공 중이다. 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과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도 각각 연

3.72%, 연 3.70%를 제공했다.

이처럼 금리가 낮아지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자금은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에 몰리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은 11조4000억원이 몰리면서 증가 폭이 전월(0.4조 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같은 달 요구불예금도 10조8000억원 늘어 증가세가 전월(2.1조 원)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미국 등 정책금리가 인하되면 증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대기하는 단기 예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기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전북은행의 씨드모아통장 상품이다. 기본금리 2.80%를 제공한다.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과 KDB산업은행의 KDB HI입출금통장은 각각 연 2.30%를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비트코인, 9000만원 전고점 찍어... 단기조정 후 1억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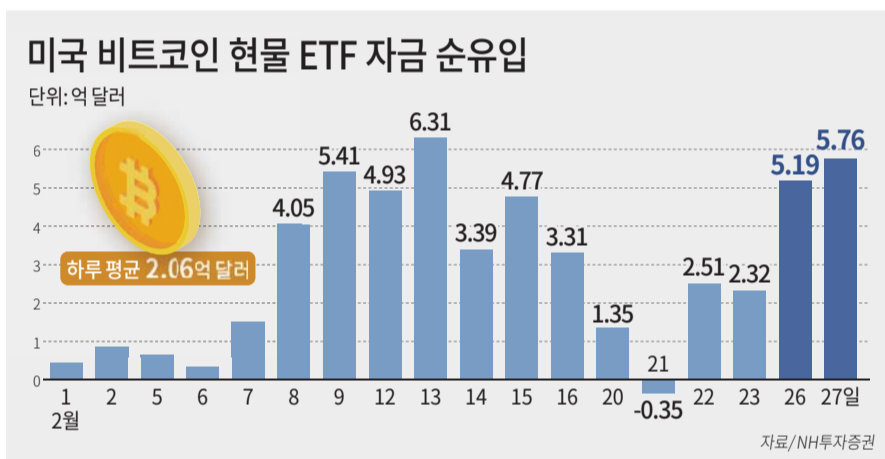
8000만원대서 지속 거래 중 현물 ETF 승인으로 유입 자금 ↑ 가상화폐 전체 시총 2조달러 돌파

비트코인이 과속지세다. 지난 2월에 만 40% 이상 급등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9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뚫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몰린 돈이 몰리면서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어, 단기조정 후 1억원을 돌파할 것이라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3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86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원화 시장 기준 직전 전고점(2021년 11월 9일)인 8270만원을 약 27개월 만에 넘어선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9000만원을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새롭게 기록했다.

해외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은 6만



2000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지난달 29일 한때 6만400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2021년 11월 역사적 고점(6만9000달러) 경신도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2월에만 40% 넘게 상승하면서 월간 상승률 기준으로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힘입어 글로벌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시총)도 2조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2일 기준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2조2700억 달러(약 3031조6000억원)로 가상화폐 시총이 2조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역대 최고 시총은 지난 2021년 11월 기록한 2조7000억 달러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상승 원인으로 오는 4월 반감기 도래와 ETF 승인을 꼽고 있다.

비트코인 유통량이 줄어드는 반감기는 오는 4월로 예정되어 있다. 유통량이 줄어들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적극적인 매수를 펼치게 된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반감기는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2012년과 2016년, 2020년 반감기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올랐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유입 자금도 많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직후인 지난 1월11일부터 2월27일까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하루 평균 2억 600만달러의 자금이 순유입 됐고, 지난달 26일과 27일의 순유입 규모는 각각 5억1900만달러, 5억7600만달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크립토 윈터(가상화폐 침체기)가 지나고 크립토 스프링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어, 단기 조정을 거친 후 1억원 돌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4월 8500만원을 경신 할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기간이 많이 앞당겨졌다”며 “단기 조정으로 8500만원까지 하락 후 다시 상승 전환할 경우 연내 1억원 돌파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C은행의 제프 캔드릭 FX리서치 헤드는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이후 운용사들의 매도세가 잠잠해지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했다”며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말 10만 달러를 기록 후 내년 말에는 두 배인 2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음 승인 대상으로 꼽히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오는 5월에 미국 당국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블랙록·피델리티 등 최소 10개 업체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신청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 주택공급·금리, 시장 주요 변수

KB금융, ‘2024 KB 부동산 보고서’ 2025년까지 최저점이나 회복 예상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이 올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올해가 최저점이 될 것이라 인식이 강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주택공급과 금리를 꼽았다.

3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4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자산관리전문가(PB)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2024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시장 전문가의 74%, 공인중개사와 PB의 각 79%가 하락을 전망했다.

하락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경우 1~3% 하락의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PB는 3~5% 하락을 점쳤다.

지역별로는 다소 차별화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하락 전망이 우세했지만 시장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3분의 1은 수도권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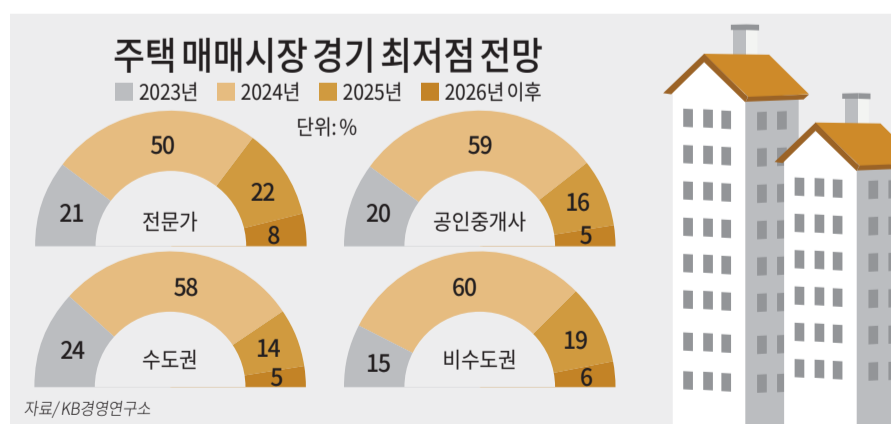
특히 전세가격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전문가 52%, 공인중개사 53%로 많았다.

주택 매매시장 경기 최저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2024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2026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쳐 늦어도 2025년까지는 주택 경기가 최저점을 지나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2024년이 경기 최저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많았지만 2023년이 최저점이라는

의견 역시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가 진단한 올해 주택시장 주요 변수는 공급과 금리다.

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지난 해부터 주택공급 감소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인하 폭, 주택 공급 등의 변수가 부동산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정책으로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PB 모두 금리 인하를 꼽았다.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 지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공인중개사 그룹에서 금리와 대출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전문가, 공인중개사, PB는 공통적으로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 아파트 분양과 신축 아파트, 재건축을 꼽았다. 아파트 분양과 신축 아파트는 2023년에 비해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재건축은 꾸준히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게 진행되면서 선제적 대응이 중요

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당시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이번 침체기에는 사업진행이 지연되며 오히려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금리 부담이 큰 상황에서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